

## 고흥에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단지 조성

도덕면 간척지 29.5ha에 2022년까지 국비·지방비 1056억 투입  
첨단 미래농업 선도 혁신밸리 ... 청년 창업보육센터 등 들어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유리온실, 청년보육단지 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농·산업 단지가 전남에 조성된다.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로 고흥이 선정되면서다. <관련기사 3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으로 고흥과 경남 밀양을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을 집약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업 산업단지.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됐다.

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 등이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역의 경우 혁신밸리 조성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타당성,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차별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열대 작물 위주로 수입 대체 품목을 육성해 국산하겠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전남도는 온난한 기후, 전국 최대 일조량

등으로 스마트팜에 적합하고, 넓은 간척지를 활용해 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혁신밸리 인근에 창농·창업 지원이 가능한 창농 예비단지(30ha)를 조성, 다수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창농을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와 신양리 등 간척지 일대 29.5ha에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056억원을 투입, 청년 농부들을 위한 실습농장 등을 갖춘 청년보육단지(4.5ha)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만감류), 지역특화작물(멜론), 수출 품목(스페셜T토마토, 메리퀸 딸기) 등을 생산하는 생산시설(13.5ha), 실증온실과 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실증단지(4.5ha) 등을 조성한다는 게 전남도와 고흥군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의 국산화, 농

업용 드론과 AI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도 혁신밸리 내에서 연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광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연계, '청년이 찾아오는 으뜸 산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을 보완, 올 8월까지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내년 초부터 핵심시설(보육센터, 임대농장, 실증단지)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 산·학·연과 공동으로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 농·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전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계적 청년 창업 모델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 원형복원

5·18 당시 공간으로 ... 별관 3~4층 복원·연결통로도

복원 기본계획 국민 설명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도청 참관 및 민원실, 사무관 등 건물 6개동이 원형 복원된다. 이들 건물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활동 장소로 쓰였으며 계엄군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했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관련기사 3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회의실(2층)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 이용섭 광주시장, 정영일 범시도민대책위원장, 김재영 조선대민주평화연구원장을 비롯해 시도민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추진 경과, 광주시·범시도민대책위 요구안, 복원 원칙 및 방향, 향후 계획, 전시콘텐츠 및 공간구성 기본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복원 기본계획은 광주시와 범시도민대책위 등의 요구안을 반영해 건물 6개동을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 원칙과 방향은 현 건물들의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도청 본관, 회의실, 도청찰

국 민원실, 사무관은 완전 복원되며 도청 별관과 도 경찰국은 법률적 고려와 건축적 고려를 토대로 다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주요 활동 거점지였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한 도청 본관 1층 서무과,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었던 2층 부지사실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은 철거해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도청 별관은 5·18 당시 4층 건물이었으나 현재 일부는 외형은 남아 있고 일부는 철거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전당 방문객을 위해 1~2층은 전당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3~4층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도 경찰국은 현행 '보강 철골구조체'를 유지하면서 5·18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다. 다만 전면의 방문자센터 및 후면 철골구조물은 철거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추진 경과, 광주시·범시도민대책위 요구안, 복원 원칙 및 방향, 향후 계획, 전시콘텐츠 및 공간구성 기본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복원 기본계획은 광주시와 범시도민대책위 등의 요구안을 반영해 건물 6개동을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 원칙과 방향은 현 건물들의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도청 본관, 회의실, 도청찰



광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8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2019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2000여명의 시민들이 대추나무, 앵두나무와 서향나무, 로즈마리를 받기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퇴

그룹 내 모든 직함 내려놓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 금호고속 사내이사직도 내려놓았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감사보고서 사태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그룹 수장으로서 책임을 진 결정이다. <관련기사 17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박 회장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회장직,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 금호고속 사내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한다. 이는 박 회장이 가진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창수 사장, 금호산업은 서재환 사장 체제로 운영된다.

그들은 박 회장이 최근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그룹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감사를 거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해군, 세월호 DVR 바뀌치기 의혹  
특조위 조사내용 중간 발표 ▶6면  
신발도유람  
뱃꽃 민개 '기의 고장' 영암 ▶18면  
KIA 외국인 선수 1차 점검  
월랜드 굿, 터너·해즐베이커 글세 ▶20면

#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 DIVE INTO PEACE

####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 2019. 7. 12. ~ 7. 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 2019. 8. 5. ~ 8. 18. (14일간)

| 장소 : 광주광역시, 여수시 | 참가 : 200여개국 15,000여명  
| 종목 :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Official FINA Partners

Institutional Partners